

A L C H E M Y O F

F I R E



2026 01+02

불의 연금술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불의 연금술

불의 연금술

# ALCHEMY OF FIRE



연금술사는 쇠를 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변화와 창조의 주체를 빗대어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아에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조하는 연금술사들이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현장,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기본을 지키며 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 최고의 작품을 빚어내기 위해 혼을 담은 장인처럼, 자신의 일에 혼신을 다하는 세아인들의 모습이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불을 발견한 순간, 인류는 빛과 열을 얻었다.



우리는 불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불은 온기이자 위협이었고, 인류와 가장 오래 함께해온 동반자였다.  
불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 10

### 신년사

붉은 말의 기백으로  
초불확실의 파고를 돌파해 나갑시다  
- 회장 이순형

## 12

### 사색하다

불의 연금술,  
철을 철답게 만드는 사람들



08



20

## 14

### 통찰하다

불의 연금술사

## 20

### 대화하다

불을 다스려 가치를 만드는 연금술사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2제강팀  
김성민 기장, 박재경 차장

## 26

### 뉴스룸 1

붉은 말의 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갈 세아  
- 2026 세아그룹 신년회의

## 32

### Special Talk

신뢰로 답하고, 책임으로 증명하다  
- 2026년 세아그룹 신입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26

## 36

### 뉴스룸 2

미래차 시장을 향한 전환의 시작  
- 세아특수강 원주 2공장 증축

## 40

### 세아 명예의 전당

버려지던 것을 다시 가치 있는 것으로  
- 세아장원특수강 세아업적상 금상 수상팀

## 46

### 세계인, 세아인

휴스턴에서 가치를 키워가는  
세아의 이름, 세아의 사람들  
- 빌리 팜머트리(Billy Palmertree)  
SeAH Steel USA 슈퍼바이저



40



50

## 50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겨울의 속을 채우는 달콤함,  
쫄득바삭 호떡

## 54

### 부캐의 발견

잘 쉬는 힘, 다시 일어서는 시간  
- 세아 L&S 서울판재영업팀 이지훈 팀장

## 58

### 공간미학

철로 완성된 풍경  
- 뮤지엄 산(Museum SAN)

## 64

### 세아뉴스 & 사우동정

그룹 내 주요 행사 및  
사우동정 소식



58

## 66

### 당신을 칭찬합니다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대리

세아웹진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발행일 2026년 2월 20일(통권 421호)

발행인 김수호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ISSN 2636-1787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붉은 말의 기백으로 초불확실의 파고를 돌파해 나갑시다”

세아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을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지치지 않는 강인한 체력으로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진취적 기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붉은 말의 기상은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뚫어오르는 세아의 섯물과도 닮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세아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망과 달리, 우리 기업이 마주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혹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요새화(Fortress Economy)’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쌓아 올린 무역 장벽과 탄소 규제라는 새로운 질서는 급격한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며 우리의 생존능력을 시험하고 있고, 여기에 철강 산업의 구조적 저성과 공급 과잉까지 더해져 ‘초(超) 불확실성’의 안개는 지난해보다 더욱 두텁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아인 여러분, 평온한 바다에서는 결코 강인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거센 격랑(激浪)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세아의 진정한 저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변화의 파고 앞에서 주저하며 간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 더 멀리 나아갈 것인가를 두고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가장 위대한 전략은 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활용하여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바람을 타고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변화된 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다음 세 가지 과제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원적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의 시대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보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기회로 삼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과 ‘친환경·고부가 제품’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장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의 신뢰임을 명심합니다.

**둘째, 축적된 데이터와 AI의 결합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초격차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입니다. 세아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해온 방대한 제조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AI 기술과 결합해 빠른 시일 내에 내재화한다면 우리의 생산성과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외 법인을 전략적 기지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한 세계 여러 곳의 사업장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더욱 빛을 발할 강력한 자산입니다.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현지 산업과 함께 호흡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현지 시장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새로운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현재 투자 진행 중인 해외 사업장들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그룹 전체 시너지 창출의 첨병(尖兵)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세아인 여러분, 이 모든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하나 된 노사문화’라는 단단한 기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척정신으로 무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아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세아인들의 도전정신임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발휘하는 집단지성과 강한 실행력만이 이 격랑(激浪)을 헤쳐 나갈 유일한 열쇠입니다.

2026년 병오년, 광야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붉은 말의 기백으로 불확실성의 장벽을 넘어 세아의 무궁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값진 땀방울이 가정에는 행복으로, 일터에는 보람으로 가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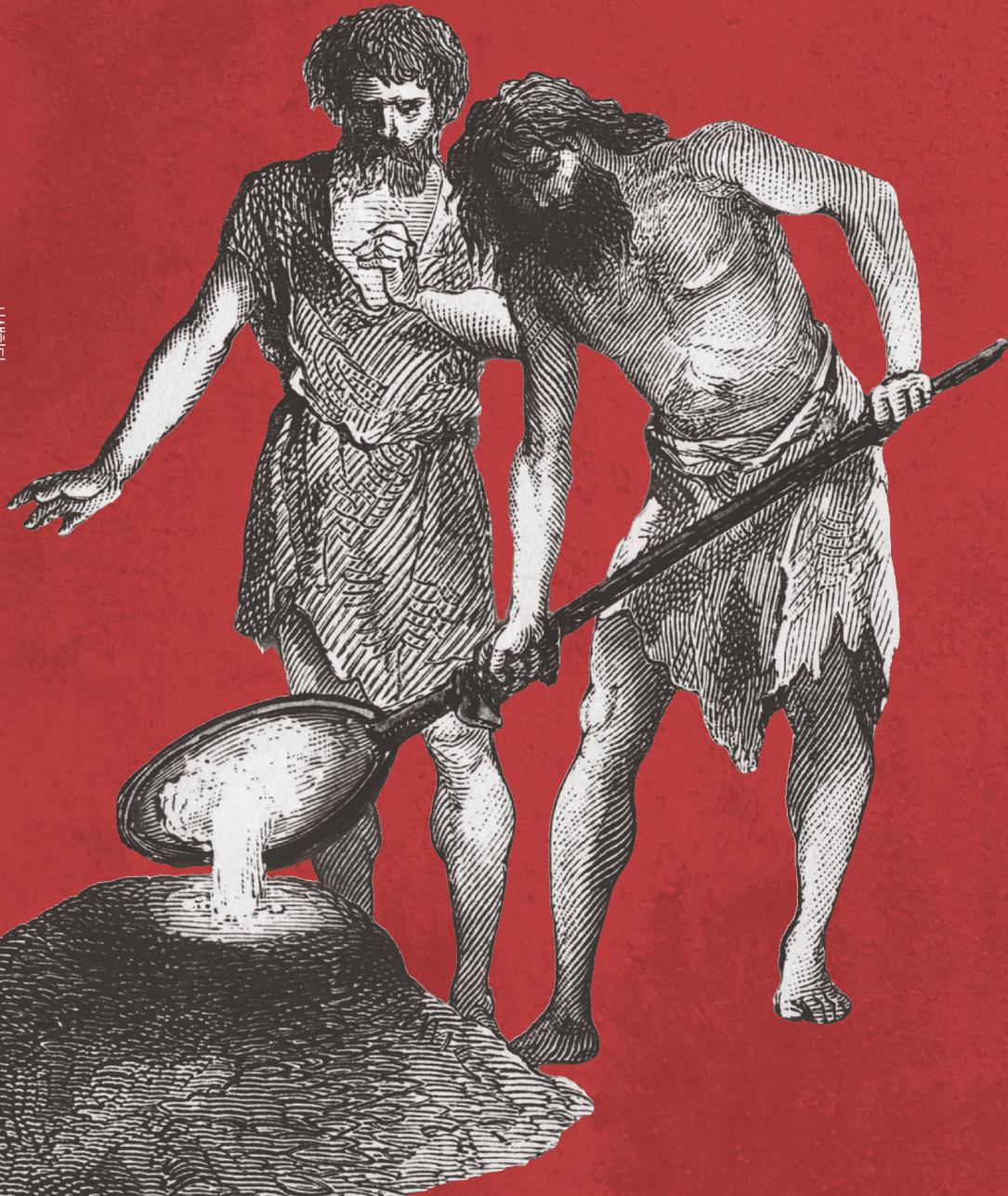
2026년 새해 아침

회장 이순형



# ALCHEMY

디자이너



철은 스스로 완성되지 않는다.

뜨거운 불 앞에 서는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만 비로소 '철'이 된다.

수천 도의 열기 속에서 성분을 맞추고, 시간을 재며,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일.

제강 현장은 철의 성질과 쓰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불은 거칠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의 기술자들은 그 불을 피하지 않는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품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불을 마주한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과 반복되는 공정, 하루하루 이어지는 긴장 속에서도

제강 기술자들의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다.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가장 기본을 지켜온 사람들,

철을 철답게 만들어온 제강 기술자들의 존재가 고맙고 든든하다.

# OF

# FIRE

불의 연금술,  
철을 철답게 만드는 사람들

# 불 의 연 금 술 사

글. 홍완식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끄는 발굴팀에 의해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발견 이후 거의 한 세기 가까이 과학자들을 미궁에 빠뜨린 물건이 하나 있었다. 휘황찬란한 황금을 소재로 만든 수많은 부장품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태를 드러낸 철제 단검이었다.

현대의 통념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단검은 놀랍게도 금으로 장식된 손잡이와 칼집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30 cm 남짓한 길이에 결코 위압적이지 않은 모습을 한 이 단검을 만들어 낸 철은, 마치 금을 자신의 발 아래에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

# Tutankhamun

# Meteoritic Iron Dagger

투탕카멘 왕의  
운석철 단검



고대 이집트의 소년왕 투탕카멘이 재위했던 시기는 기원전 14세기이다. 학자들은 혼란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와 주변 지역에서 철기 문명이 시작된 시점보다 200년 이상 앞선 시절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철을 구할 수 있었던 말인가.

2016년 이후 이탈리아 및 일본 연구팀이 정밀한 화학적 분석을 진행한 끝에, 차츰 그 비밀이 밝혀졌다. 단검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철의 출처는 흔히 알려진 자철광이나 적철광이 아닌 운석이었다. 운석 특유의 높은 니켈 함량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의 건조한 환경 덕분에 녹슬지 않고 예리한 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냈다. 마치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비롯기라도 하듯,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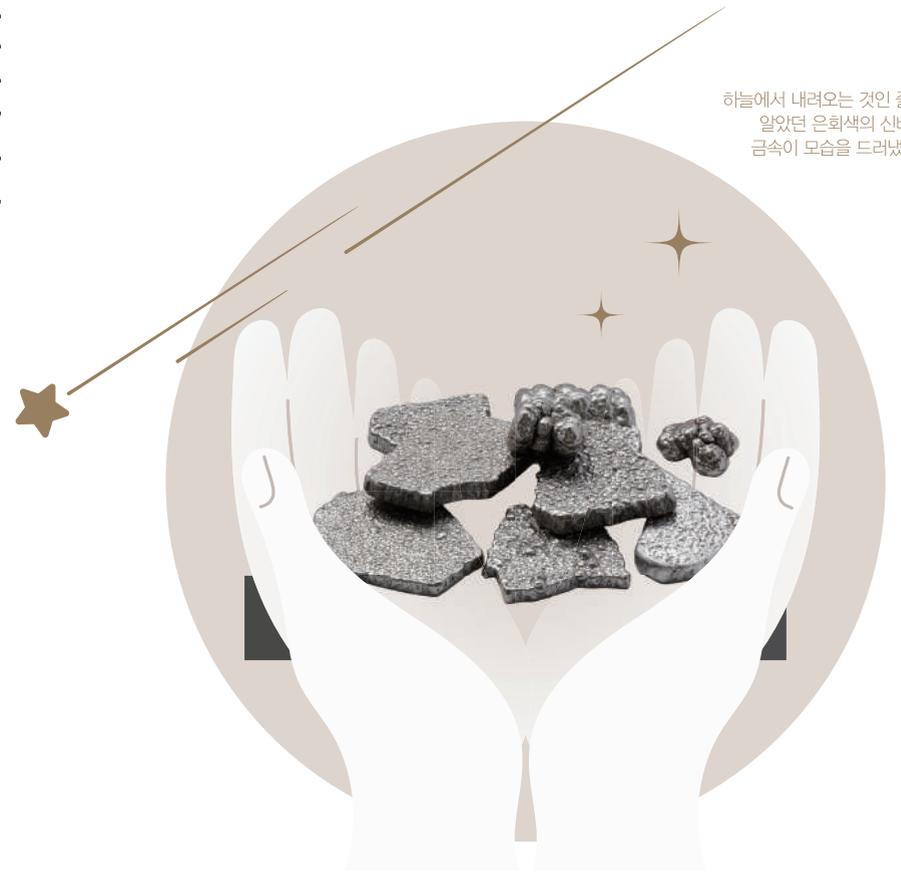
인류는 금속의 제련법을 알아내기 이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별뿔별이 환한 빛의 꼬리를 끌며 떨어질 때, 대기에 의한 마찰열은 천혜의 용광로가 된다. 당시 인류가 피우던 화톳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온에서, 마법처럼 잘 정련된 철-니켈 합금이 지구 곳곳에 뿌려졌다. 인류는 이를 주위 정성껏 불에 달구고, 돌로 두들기고 갈아내어 구슬이나 단검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높은 이들에게 바쳤다. 이 시기의 철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땅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소재였다. 그렇기에 금보다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녔다. 하늘이 내려준 금속을 손에 친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철은 힘이자 서사이며, 불은 그 서사를 펼쳐내는 언어라는 것을.

마침내 땅에서 철을 손에 넣게 됐다.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별뿔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인류는  
금류인 금리만 기다리던 인류는

청동기 시대, 구리를 제련하던 기술자들은 퍼처럼 붉은빛이 도는 돌맹이 몇 개를 도가니 속에 던져 넣었다. 이 돌은 이내 녹아 불순물을 잡아채고 거품처럼 위로 떠올라 엉겨붙었다. 덕분에 잘 정제된 구리물이 아래에 고여, 질 좋은 구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반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 이 퍼석한 거품 덩어리를 눈여겨본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누가 봐도 폐기물처럼 보이는 이 슬래그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 망치질을 해보았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모래 같은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슬래그는 점차 단단해졌다. 이윽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신하듯,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만 알았던 은회색의 신비한 금속이 모습을 드러냈다.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별뿔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인류는 마침내 땅에서 철을 손에 넣게 됐다.

그러나 철은 쉽사리 인류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청동에 비하면 약해 보였고, 금세 시뻘겋게 녹이 슬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뭇에 콩 나듯,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조각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조각들은 그때까지 알려진 어떤 금속보다도 가볍고 튼튼하며 예리한 무기와 도구를 가능하게 했다. 처음에는 이를 그저 '좋은 쇠'라고 불렀으나, 차츰 사람들은 이 금속을 보면서 '굳건히 버틴다', '확고하게 지킨다'는 뜻의 고대어 'stak-'를 떠올렸다. 이 말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해 오늘날 영어로 강(鋼)을 뜻하는 'steel'이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만 알았던 은회색의 신비한 금속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극소수의 선구자들은 불과 망치를 벗 삼아 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매달렸다. 근대 과학이 싹트기 전, 우주 만물이 물·불·흙·바람으로 이뤄졌다는 4원소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불의 정화 작용이 철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철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철 속의 불순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갖가지 물질을 섞었고, 주술을 포함한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연료로 쓰던 숯에서 스며든 미량의 탄소가 철의 성능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어느새 철을 다루는 기술은 마법과 같은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철을 다루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연금술과 맞닿아 있었다. 연금술사들의 목표는 단지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상징되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최고의 철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일 또한 연금술과 궤를 같이했다. 마땅한 측정 장비조차 없던 시절, 철의 장인들은 오감을 총동원해 '좋은 쇠'가 탄생하는 순간을 체득해 나갔다. 조선시대의 한 대장장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쇠가 붉다 해서 다 같은 붉음이 아니니, 고을의 바람과 숲의 냄새까지 합쳐서야 비로소 그날의 철이 된다." 불과 몇 초 차이로 갈리는 상전이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의 조성 차이를, 불꽃의 결을 읽어내는 눈빛과 망치를 천 손끝의 미세한 떨림으로 가능해야 했던 인류와 철강의 끝없는 힘겨루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명한 판결이 떠오른다. "심장에 가까운 살을 도려내되, 살 이외에 피 한 방울도 나와서는 안 되고, 베어내는 살의 무게도 1파운드에서 털끝만큼이라도 많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 평생 돈을 좇아 살아온 사일록은 절망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만약 그 법정 구경꾼 중에 철을 다루는 장인이 있었다면, 그는 조용히 미소를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른다. 묵묵히 작업장으로 발걸음 돌리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 의지로 가득 찼을 것이다.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철의 요구사항을 평생 맞춰 온 그에게, 이는 불가능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도전은 셰익스피어 시대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레이저 수술과 초정밀 측정·분석 장비, 3차원 스캐너 등의 기술로 꽃피웠다. 철은 핵심 부품을 구현하는 특수강으로 진화해, 이러한 첨단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연금술과 맞닿아 있었다.

최고의 철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일 또한 연금술과 궤를 같이했다.

# Human Creativity

인공지능과 초정밀 장비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에 무엇을 묻고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인간의 창의력이 결정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트윈과 자율 최적화 또한 결국 인간의 맥락 위에서만 빛을 발한다. 데이터를 '정답'과 '오답'으로 라벨링한 사람은 누구인가. 양품과 불량도의 경계를 처음 그은 이는 누구인가. 인공지능은 우리가 쌓아 온 경험의 지도 위를 달릴 뿐, 그 지도의 첫 선을 그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다. 그 경험은 사회와 경제로 환원된다. 다리의 수명, 선박의 안전, 자동차의 경량화, 풍력 타워의 피로한계, 철도 레일의 소음과 마모까지—이 모든 것은 '털끝만큼'의 오차와 '피 한 방울'의 공정 불량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장인정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창의성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축적된 시행착오와 노하우는 마침내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된다. 국가 경쟁력을 숫자로 말할 때, 그 숫자 뒤에는 현미경 아래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경계를 읽어낸 기술자의 안목과, 겹겹이 쌓인 장인들의 고뇌가 있다.

불은 여전히 번덕스럽고, 철은 여전히 까다롭다. 수많은 데이터와 요인 너머에는 아직도 인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온도와 시간을 읽고 미량 원소의 조성을 다독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책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이들의 눈빛은 지금도 변함없다. 4차 산업혁명은 도구의 종류를 바꾸었을 뿐, 그 눈빛의 의미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인공지능과 초정밀 장비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에 무엇을 묻고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인간의 창의력이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기술자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자동화가 개입의 빈도를 줄일수록, 사람은 '언제 개입하지 않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숫자를 믿되, 숫자를 낳는 맥락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 '왜'라는 질문을 미루지 않고, 실패를 공론으로 끌어올리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손끝으로 재창조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사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들을 불의 연금술사라 불렀다. ♣

# 불을 다스려 가치를 만드는 연금술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2제강팀

( 김성민 기장 & 박재경 차장 )

전기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3,000℃에 가까운 아크열이 고철을 녹이고, 1,600℃가 넘는 쇠물이 흐르는 현장에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불 앞에서 안전한 공정을 이끌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붙잡고 '낭비 없는 불'을 설계한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2제강팀 김성민 기장과 박재경 차장은 같은 불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완성해온 사람들이다. 오늘도 두 사람은 '최고의 특수강은 결국 사람의 기본과 책임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불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 다른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는 불

전기로는 공장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어야 공정이 살아 움직이고, 그 속에서 태어난 쇳물은 제품으로 완성된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2제강팀의 하루는 그 심장을 깨우는 일로 시작한다.

김성민 기장은 오전 8시 30분 현장 조회로 하루를 연다. '오늘 조업에 문제 될 것은 없는지', '어제와 다른 변수는 무엇인지'를 대장들과 공유한 뒤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안전 그라운드 룰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미준수라도 발견되면 그 원인을 되짚는다.

2제강공장 전기로 파트의 기장으로서 조업 전반을 총괄하는 그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흐르도록 관리하는 현장의 지휘관이다.

"전기로 현장에서는 작은 변칙 하나가 큰 사고나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김 기장의 말 속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다.

박재경 차장의 하루 역시 '확인'에서 출발한다. 전날과 주말 사이의 조업 흐름을 다시 살피고,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점검한다. 전기로 공정은 회사에서 가장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되는 공정이다. 그의 역할은 에너지와 부자재 투입 비율을 최적화하고, 관행 속 낭비 요소를 찾아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불이라는 극한의 에너지를 데이터로 통제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같은 팀이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전기로 운영을 완성한다. 김성민 기장은 현장을 통솔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업을 이끌고, 박재경 차장은 기준과 분석으로 현장을 뒷받침한다. 목표는 같다.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은 매일 의견을 나눈다. 원가가 예상보다 높아진 날에는 '왜 에너지가 더 소모됐는지', 작업 중단이 발생한 날에는 '어디서 변수가 시작됐는지'를 함께 짚는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공유하며 공정을 다시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 전기로를 움직이는 이들의 팀워크는 그렇게 쌓여왔다.

### 고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

김성민 기장이 전기로 앞에 선 시간은 20년을 훌쩍 넘는다. 2001년, "뜨거운 전기로의 불꽃을 직접 다루고 싶다"는 열망으로 세아베스틸(당시 기아특수강)의 문을 두드렸다. 입사 초기 5년은 차축공장에서 제품의 최종 가공 단계와 현장 감각을 익힌 시간이었다. 이후 제강 현장으로 옮긴 뒤 줄곧 최전선을 지켜왔다.

그에게 '불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설비를 가동하는 일이 아니다. 아크가 만들어내는 초고온을 정밀하게 통제해 차가운 고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전기로 조업은 투입되는 고철의 성분을 면밀히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불순물이 적은 스크랩을 선별하고, 합금철 등 부자재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 전기로에 장입한다. 이후 전기 아크와 산소를 이용해 용해를 진행한다. 단단한 고철이 순식간에 순수한 쇳물로 변하는 순간, 김 기장은 이 순간을 '불의 마법'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그 이후다. 온도와 성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따라 품질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설비에 부담이 되고, 낮으면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된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산소와 무원료를 투입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목표 성분을 확보하는 일. 그는 이 과정을 '제강 기술의 정수'라고 표현한다.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안전이 있다. 냉각수 흐름을 점검하고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폭발이나 비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김성민 기장은 뜨거운 에너지를 다루는 만큼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불을 다룬다는 것은 안전하게 최고의 특수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는 일이다.

숫물이 뿜어내는 소리와 불꽃의 색깔, 조업 중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다. 그는 이러한 현장의 살아 있는 감각과 정교한 데이터를 하나로 접목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축적된 경험 위에 새로운 변화를 더하며, 그는 오늘도 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전기료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불은 회사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심장입니다.” 김성민 기장의 말에는 공정을 넘어선 깊은 애착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

박재경 차장의 ‘불’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입사와 동시에 2제강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허허벌판에서 공장이 위용을 갖추기까지 설비의 나사 하나, 배관의 흐름 하나까지 직접 확인하며 몸으로 익혔다.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기가 그의 성장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기술연구소에서 보낸 5년은 현장 경험이라는 뼈대 위에 이론을 쌓는 시간이었다. 현장에서 ‘감’으로 느끼던 현상을 데이터와 이론으로 해석하며 공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지금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공정 효율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제강 설비 특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이자, 사내에서 인정받는 조괴(ingot) 엔지니어로서, 관행적인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낭비 요소를 찾고 에너지와 부자재 투입 비율을 최적화하고 있다.

그는 전기료를 이렇게 설명한다. “전기료는 번개를 가두어 쇠를 녹이는 공정입니다. 그 번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곧 회사의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정 현상을 데이터와 이론으로 해석해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 뜨거운 불길이 헛되어 흩어지지 않고 오직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가 현장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불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불은 뜨겁지만, 그것을 다루는 판단은 누구보다 차가워야 합니다.”

박재경 차장에게 불은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다. 현장은 뜨겁고, 판단은 차가워야 한다. 그 간극을 건디는 힘이 바로 ‘불의 장인’이 갖는 품격이다.

### 그들이 걸어온 장인의 길

그렇다면 이들에게 ‘장인정신’이란 무엇일까. 두 사람의 답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첫째는 기본과 원칙에 대한 철저함이다. “작은 변칙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성민 기장은 단언한다.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지키고, 적당함을 경계하며,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태도가 숙련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박재경 차장 역시 전기료의 태생적 불안정성을 통제해 ‘무결점 조업’을 유지하는 상태가 곧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팀워크다. 김 기장은 “이 일은 결코 혼자서 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선배의 노하우를 존중하고, 후배의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뢰의 관계가 현장의 시너지를 만든다. 박재경 차장은 현장의 호출에 언제든 응답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머리말에 둔 휴대폰은 제강 엔지니어로서 현장과 늘 연결되어 있겠다는 다짐의 상징이다.

셋째는 결과다. 전문성은 과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업 안정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전문가라는 이름이 붙는다. 김성민 기장이 전력 사용량을 줄여 더 나은 출강 결과를 만들어 느끼는 뿌듯함은 장인정신이 숫자로 번역되는 순간이다. 박재경 차장이 공정을 개선해 2025년 불량률 0%를 달성한 경험은 이론과 데이터가 현장 품질로 환원된 결과다.

김성민 기장의 바람은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동료들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일터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 위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팀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회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재경 차장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고민을 놓지 않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후배들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멘토가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가장 안전한 스마트 팩토리, 웃으며 출근해 웃으며 퇴근하는 현장. 불의 장인들이 꿈꾸는 미래는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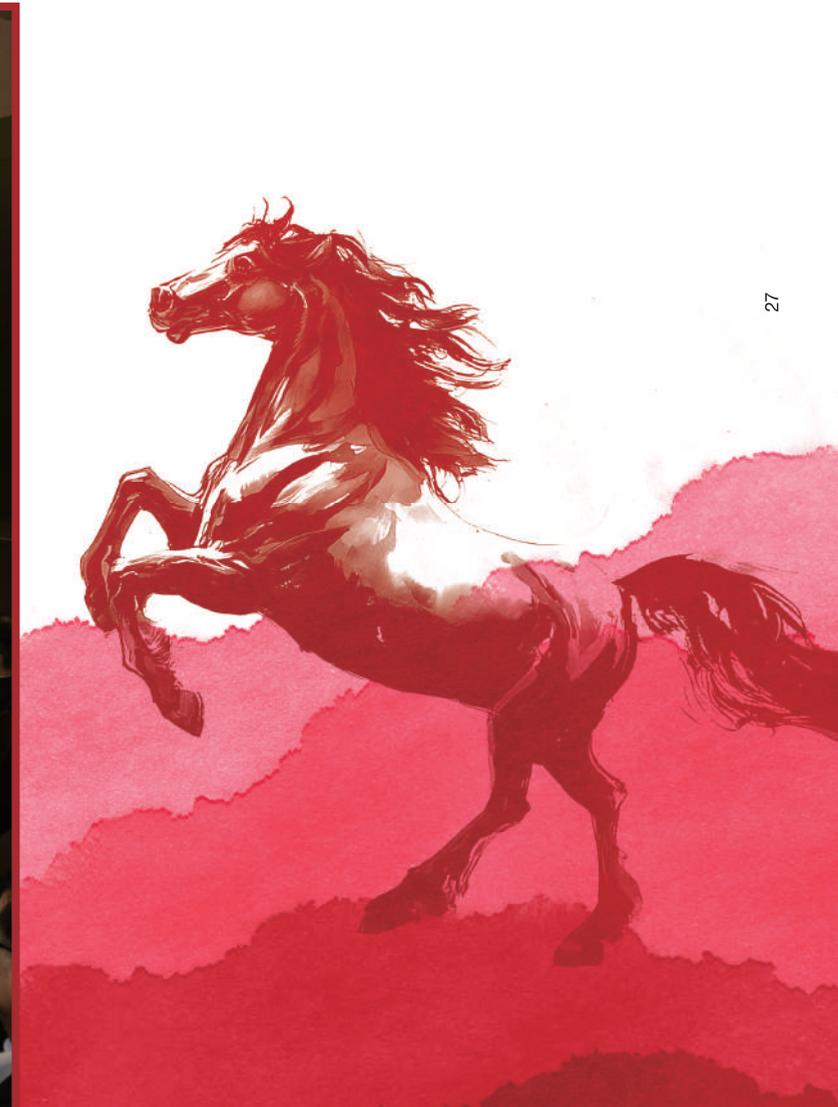
전기료 앞에서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뜨거운 불이 움직이고, 차가운 데이터가 그 흐름을 조율한다. 현장과 사무기술의 언어가 맞물릴 때 고철은 숫물이 되고, 숫물은 특수강이 된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김성민 기장과 박재경 차장은 오늘도 같은 약속을 반복한다. 기본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품질을 지킨다. 그 장인들의 열정은 세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



# 붉은 말의 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갈 세아

2026 세아그룹 신년회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철강 시장 속에서도 세아의 새해 방향은 분명했다. 1월 7일 세아타워에서 열린 2026년 신년회의에서 임직원들은 지난해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며, 불황이 일상화된 환경을 돌파할 실행력과 도전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붉은 말의 해'가 상징하는 강인한 기세처럼, 2026년을 향한 세아의 의지가 힘차게 울려퍼진 신년회의 현장을 담아봤다.



### 세아의 새해를 여는 자리

2026년의 출발선 앞에서, 철강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 철강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아인들은 이 불확실성의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2026년을 시작하고 있다. 1월 7일 세아타워에서 열린 2026년 신년회는 그 의지를 다지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임직원들이 오디토리움에 모인 가운데 사회를 맡은 세아홀딩스 박성준 이사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불은 말의 강인한 기세처럼, 세아가족 모두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새해 인사와 함께 신년회의 시작을 알렸다.

첫 순서로 세아탁구단의 활약상을 담은 '세아와 함께한 대한민국 탁구의 순간들' 영상이 상영됐다. 임직원들은 세아의 후원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장의 순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비인기 종목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세아의 진심을 만나 대한민국 탁구가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확인했다. '세아'를 가슴에 달고 세계 무대를 꿈꾸는 선수들처럼, 세아 역시 글로벌 시장의 파고를 넘어 '철강 국가대표'로서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2026년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 역시 깊은 공감을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영상이 전한 따뜻한 울림 속에서, 2026년에도 세아가 만들어 갈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기대했다.



### 세아의 2025년을 빛낸 주역들

오프닝 영상 상영 후에는 '2025 세아업적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세아업적상'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적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4건의 공적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금상 1팀, 은상 2팀, 특별상 4팀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먼저 은상에는 세아베스틸의 2개 공적이 선정됐다. 첫 번째 은상으로는 '연주공정 잔강 최소화·조업 최적화 기술 개발' 건이 선정됐다. 윤보희 차장 외 7명은 고객의 소량·다품종 주문 증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잔강 최소화 및 텀디쉬 재사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두 번째 은상은 'KN-18 사업화: 원자력사업의 포문을 열다' 건이었다. 조민수 과장 외 9명은 경쟁사의 독점 구도를 깨고 수주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원자력 후행주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서 특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첫 번째 특별상은 SeAH Steel USA의 '7.625인치 Capa, 증대 및 생산 안정화' 건이 선정됐다. 제이드 신(Jade Shin) 외 12명은 주력 제품인 5.5인치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심리스 강관 등 고사양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기존 라인을 7.625인치 생산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시장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익성을 확대했다.

두 번째 특별상으로는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항공방산소재의 '국내 최초 항공용 Wing Spar 단조품 국산화 및 그룹사 간 협력 시너지 창출' 건이었다. 최상민 차장 외 10명은 세아항공방산소재의 알루미늄 소재 기술과 세아창원특수강의 단조 역량을 결합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최초로 항공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세 번째 특별상은 세아창원특수강의 'Steelmaking Reimagined - 공장 자동화를 통한 제조혁신' 건이었다. 임종현 차장 외 8명은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제강 조업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운영과 자동화 중심의 작업으로 전환하며 원가·품질·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네 번째 특별상은 Inox Tech과 세아제강의 '단일 프로젝트 23.4m EUR 규모 Duplex pipes 및 STS pipe 수주 및 대응' 건이 선정됐다. 김병국 대리 외 8명은 수주 절벽 상황에서 고객의 분리 발주 계획을 뒤집고, Inox Tech의 Duplex와 세아제강의 스테인리스 스틸의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추가 수주까지 이끌어 내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업적상의 하이라이트인 금상 시상이 이어졌다. 2025년 금상은 세아창원특수강의 'Green Up-Cycling 기술로 지속 가능한 원료 순환 시스템 구축' 건이 선정됐다. 서영우 과장 외 9명은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며 원가 절감을 이뤄냈다. 특히 비용을 들여 매립하던 폐수 오니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폐배터리 부산물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니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며 세아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업적상에 이어 세아경영상 시상도 진행됐다. 세아경영상은 경쟁력, 미래성장, 경영혁신, 인재육성 총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업적을 보여준 회사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경쟁력 부문에서 SeAH Steel UAE가 수상 회사로 선정됐다. SeAH Steel UAE는 도전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생산·영업·관리 부문의 체질을 정상화해 해외 생산법인으로서의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WE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중동 지역 유일의 종합 강관 공급자로 자리매김했고,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이뤄낸 성과, 이어갈 도전

이후에는 세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에 앞서 상영된 영상은 신임 임원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온 팀원들의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며 현장에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이 단상에 올라 임명장을 받는 순간에도 팀원들은 누구보다 큰 박수와 환호로 신임 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힘껏 응원했다.

이어 30년 근속 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진행됐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철한 사명의식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임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상자들에게는 순금으로 제작된 기념품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신년회의는 퇴임 임원 인사로 이어졌다. 지난 42년간 뜨거운 열정으로 특수강과 함께했던 세아창원 특수강 이상은 사장이 단상에 올라, 1984년 삼미종합특수강(現세아창원특수강)에 입사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그는 "세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세아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인사로 가족과도 같은 세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했다.

'CEO에게 듣는다' 순서에는 세아항공방산소재 성장모 대표가 나서 '세아항공방산소재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성장모 대표는 세아항공방산소재가 걸어온 여정을 되짚으며, 오늘의 성과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조직문화'와 '성장 기반을 만드는 실행'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목표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객 파트너십 강화, 생산 역량 증대와 공정 혁신, 빠른 실행력,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 실행으로 이뤄낸 2026년 세아의 성장

신년회의의 마지막 순서는 이순형 회장의 말씀이었다. 이순형 회장은 국내 철강 경기 침체와 높아지는 해외 무역 장벽, 미국발 고율 관세 등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2025년 철강 업계의 상황을 짚으며, 악조건 속에서도 각사가 이뤄낸 성과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체와 후퇴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기존 해외 사업장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형 회장의 메시지에는 불황이 해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불황이 일상화된 새로운 질서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불황이 뉴노멀이 된 시대, 결국 답은 실행이다. 붉은 말의 강인한 기세처럼 세아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며,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 갈 2026년을 기대해 본다. ☺



# 신뢰로 답하고, 책임으로 증명하다

2026년 세아그룹  
신임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2026년을 맞아 세아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성과를 쌓아온 임원진을 새롭게 임명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신임 임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키워드는 ‘신뢰’였다. 구성원을 믿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야말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데 임원 모두가 공감했다. 2026년 세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신임 임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 지금 ‘신뢰’를 이야기하는 이유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 조직에서는 ‘신뢰’가 다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고, 일하는 방식은 분산됐으며, 구성원의 가치관 또한 다양해졌다. 이제 규정과 시스템만으로 협업의 속도와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 사이의 믿음으로 돌아온다.

신뢰는 권위가 아니라 일관성, 투명성,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이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더 빠른 실행과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6년 세아의 신임 임원들은 그동안 어떤 신뢰를 쌓아왔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이어가고자 할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 아홉 명의 이야기, ‘신뢰’라는 하나의 가치

### 국경훈 이사 · 세아제강지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직이 기대는 기준은 결국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뢰의 출발점은 실력, 책임감, 윤리의식입니다. 자기 분야의 역량을 갖춰 성과를 증명하고,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조직의 불안을 줄이며 믿음을 만듭니다. 특히 리더일수록 실력 이전에 세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윤리의식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변화가 큰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계열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체 재무 업무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실현해, 세아제강지주가 안정적 재무 구조하에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김재홍 이사 · 세아제강

세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납기 일정과 품질, 고객 요구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을 숨기거나 미루기보다는 팀원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분명한 방향 제시와 결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성원 뒤에 숨지 않고 앞에 서는 자세가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이 “정직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가 결국 세아의 경쟁력임을 늘 기억하며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안상렬 이사 · 세아제강



신뢰를 주는 리더란 무엇보다 언행의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리더의 반응이 예측 가능할수록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요. 이와 더불어 건강한 소통과 투명한 피드백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쌓인다면 좀 더 편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뢰는 구성원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리더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응원 메시지에 감동했고 행복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함께 일하며 즐겁고 고맙다”는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심한구 이사 · 세아베스틸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역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준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리더 혼자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발맞춰 걸으며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함께 협업하는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환경일수록 신뢰의 가치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깊이 신뢰를 품고,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오 이사 · 세아베스틸

신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리더의 꾸준함과 도전정신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사업처럼 새로운 사업일수록 리더가 선두에서 한 단계씩 전진하며 방향을 제시할 때, 구성원들도 믿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시기에도 문제를 숨기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며,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나간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신뢰'의 힘을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구성원들이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원자력사업이 세아그룹의 또 하나의 굳건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호 이사 · 세아베스틸

신뢰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리더의 판단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때,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될수록 리더의 의도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며 신뢰 또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신뢰를 보여줄 때 상대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약속을 지키며,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질 것입니다. 임원으로서 제가 제시한 목표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동시에 팀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 남태화 이사 · 세아창원특수강



리더의 신뢰는 말보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리더십이 쌓일 때 조직 안에 자연스러운 신뢰가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직급을 내려놓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신뢰를 위해 전방위적인 소통이 필수라고 느낍니다. 신임 임원으로서 '정직 · 열정 · 실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사람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단기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송영석 이사 · 세아창원특수강

신뢰를 주는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역량과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사업 조직에서의 신뢰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요한 결정의 이유를 투명하게 공유할 때 구성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되, 필요할 때는 직접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감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경청하는 자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 또한 신뢰의 조건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타이타늄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집중하고, 협업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도경영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신사업 조직의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창호 이사 · 세아특수강



신뢰는 결코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진심과 소통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초, 중국 천진공장 내부 이슈로 급히 주재원을 발령받았을 당시, 현지 직원들의 불신으로 정상적인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지인들과 같은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의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임 임원으로서도 구성원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리더'로 자리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 원주공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 부품인 랙바(Rack Bar) 단품 가공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원주공장은 고부가가치 조향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원주 2공장(B동) 증축을 추진했다. 이번 증축은 단순한 설비 확장이 아닌, 미래차 시장을 겨냥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와 디지털 기반 생산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투자다.

## 미래차 시장을 향한 전환의 시작

세아특수강  
원주 2공장 증축



### 랙바에서 RBNA로, 지속성장을 위한 전환점

세아특수강 원주공장 AT사업본부는 그동안 자동차 조향 장치의 핵심 부품인 랙바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왔다.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축적된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세아특수강이 강점을 지닌 소재 기술과 랙바 가공 역량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조향 제품, RBNA(Rack Ball Nut Assembly)였다. RBNA는 조향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조립(Semi-assembly) 부품으로, 기존 단품 가공 대비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효율, 신속한 응답성, 정속성 측면에서 시스템 신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자동차 조향 시스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34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RBNA와 같은 스마트 조향 시스템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면서, 고정밀·고신뢰 조항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아특수강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BNA 투자를 결정했다.

현재 세아특수강의 RBNA 연간 생산량은 약 50만 대 수준이며, 향후 100만 대까지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RBNA를 세아특수강의 핵심 사업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원주 2공장 증축, 신규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세아특수강은 RBNA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해 원주 2공장(B동) 증축을 추진

했다. 기존 공장 공간만으로는 고부가가치 조립 공정과 신규 설비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증축을 통해 신규 설비와 공정을 집약적으로 배치하고, 향후 생산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증축은 단순한 양적 확장이 아니라 원주공장의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다. 그동안 가공 중심이었던 생산 구조에서 나아가, 조립 공정까지 수행하는 종합 부품 생산 거점으로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세아특수강 원주공장은 이번 증축과 더불어 제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 적용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제조 공정의 설비 가동 상태와 설비 정지 원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 조건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트렌드를 분석한다. 또한 공구 수명 관리 알람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설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함으로써 예방보전을 강화하고, 품질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현재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향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와 연동될 경우 전사적인 제조 원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함께 도입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비 및 유틸리티 단위의 전력 사용량을 무인으로 계속해 실시간으로 가시화한다. 데이터 기반 대시보드와 리포트들 통해 사무실과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라인별 전력 사용량 및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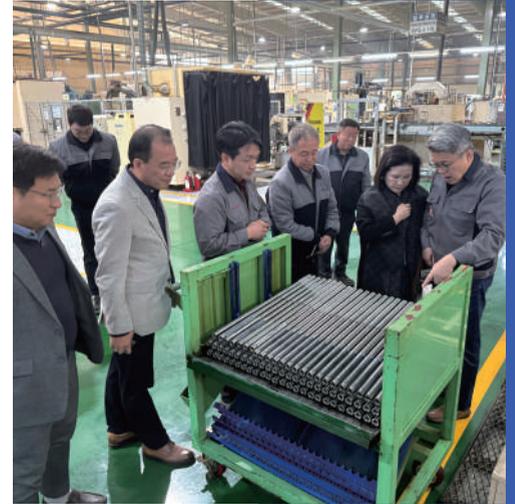
이를 통해 에너지 낭비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 에너지 효율 지표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사와 감사기관에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ESG 대응과 탄소 배출량 감축 측면에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제조 설비 모니터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현재 설비 통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A동과 B동 모두 100% 구축을 마쳤으며, 안정화 모니터링과 보안 작업을 거쳐 현재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

### 변혁기의 출발선에 선 세아특수강 원주공장

세아특수강 원주공장은 단품 가공 중심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조립 부품 생산으로 나아가는 변혁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아특수강 AT사업본부는 기대와 책임감이 공존하는 시점에서 신성장동력인 RBNA 사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세아특수강의 핵심 사업 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주 2공장 증축은 그 목표를 향한 전략적 기반이다. 세아특수강 원주공장은 이번 증축을 계기로 미래차 시대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조항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 버려지던 것을 다시 가치 있는 것으로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금상 수상팀

세아 명예의 전당



철강산업은 지금 '삼중고'를 지나고 있다. 무역 장벽은 높아지고, 환경 규제는 촘촘해졌으며, 원자재 가격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특히 특수강에 필수적인 니켈(Ni)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변동의 파고가 곧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생산 현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산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산세 슬러지)'와 제강 공정의 '분진', 그리고 설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자재'였다. 과거에는 비용을 들여 매립하는 수밖에 없던 골칫덩어리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립 비용마저 치솟아, "비싼 원료를 사서 쓰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비싼 돈을 들여 버리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버려야 할 것에서, 얻어야 할 것을 찾다**

세아창원특수강 업적상 수상팀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폐기물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자재를 얻을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니켈을 회수하는 기술 혁신’과 ‘폐자원 업사이클링의 재활용 관리혁신’이라는 두 과제를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세아창원특수강 업적상 수상팀은 오랜 도전 끝에 ‘지속 가능한 원료 순환 시스템(Green Up-Cycling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답을 만들어 냈다.

기술 혁신의 핵심은 산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와 폐배터리 부산물을 결합해 고품위 니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

서영우 과장은 “처음엔 ‘폐수오니를 재활용해보자’는 작은 아이디어였다.”고 말한다. 폐수오니는 매립이 유일한 처리 방식으로 여겨졌고, 높은 매립비용 역시 당연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선행 연구가 시작됐고,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거치며 아이디어는 ‘니켈 회수’라는 구체적인 기술 개발 과제로 발전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업적상 수상팀은 ‘폐기물 속 니켈’을 산업 원료로 환원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원료비와 매립량을 동시에 줄인 혁신적인 성과였다.

폐수오니에서 Fe, Al 등 불순물은 정제·침전시키고 니켈만 침출한 뒤, 폐배터리 부산물을 함께 처리해 회수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합 공정은 상용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기술의 원리를 가장 쉽게 풀어준 이는 이민재 사원이다. 니켈 회수는 복잡한 화학 반응처럼 보이지만, 단순화하면 녹이기(침출), 걸러내기(여과), 굳히기(정제·회수)의 3단계로 정리된다. 먼저 폐수오니와 폐배터리 부산물에 황산을 더해 니켈을 용액 속으로 녹여낸다. 이후 필터프레스를 통해 불순물을 분리해 니켈이 녹아 있는 용액을 얻고, 마지막으로 가성소다로 pH를 조절하면 니켈이 고체로 침전된다. 이를 다시 여과하면 제강에 투입 가능한 니켈 원료가 남는다.

그러나 실제 조업에 투입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기 생산품은 제강 원료로 사용하기에 형태가 부적합했고, 성분 안정성과 투입성 측면에서도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업적상 수상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민기 사원은 “형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함수율이 높은 니켈 부산물 처리를 위해 건조 프로세스를 도입했고, 수차례 테스트 끝에 부서지지 않는 최적 배합비의 브리켓을

**밤을 새워가며 설비를 최적화하고, 생산된 제품과 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끝까지 해답을 찾아온 팀원들.**



찾아냈다”고 말했다.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문제를 해결한 현장의 태도가 설비 안정화를 이끌었다. 공영성 사원에게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 가동 안정화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필터프레스 슬러지 투입 배관 파손이다. “수리하고 돌리면 또 터지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그의 말 속에는 현장의 고충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슬러지를 온몸에 뒤집어쓰며 밤을 지새운 날들은 설비 이해도를 한층 높인 성장의 과정이기도 했다. 홍민석 팀장은 “누군가 한 명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끝까지 해냈기에 현재의 실적이 가능했다.”며 이 과정을 ‘협업’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생산 조건을 맞추고, 밤을 새워가며 설비를 최적화하고, 생산된 제품과 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끝까지 해답을 찾아온 팀원들. 세계 최초라는 말의 뒤면에는 결국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분진과 폐자재까지, ‘순환’의 범위를 넓히다**

이 같은 기술 혁신에 재활용·관리 혁신 성과가 더해지며 ‘지속 가능한 원료 순환 시스템’은 완성됐다.

정은우 팀장은 전기로 기반 제강의 본질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기로는 스크랩을 주원료로 사용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지만, 세아창원특수강은 ‘특수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성분과 품질 요구가 까다로워 합금철과 스크랩 사용 비중을 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팀은 전기로 무산소 기술과 연계해 STS 스크랩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수급이 불안정했던 316 스크랩의 구매를 적극 확대했다. 여기에 자가철 사용 확대, 신규 강종 스크랩 개발을 병행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원료 사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하나의 축은 버려지던 부산물을 제강 원료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분진을 활용해 폐수오니·분철·바인더와 혼합해 브리켓 형태로 만든 뒤 외부 용융 과정을 거쳐 ECO Metal로 제품화했다. 이를 다시 전기로에 직투입해 Ni·Cr·Fe를 회수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여기에 공장 내 폐모터, 폐전선, 페라디에이터, 폐구리, 폐초경 등 각종 폐자재도 성분별로 선별 및 포장해 직투입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했고, 그룹사에서 발생하는 폐자재까지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버려지던 것에 다시 가치를 부여한 이들의 도전은,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단한 발판이 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치와 검증을 통해 가치가 증명될 때 비로소 성과가 된다.

김용휘 팀장이 들려준 에피소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모터 등 설비 부품을 분해해 회수 가능한 구리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분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일일이 부품을 해체하며 '마력당 구리량'과 같은 자체 기준을 수립했다. 이렇게 도출한 기준을 토대로 자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며 업사이클링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업사이클링 대상 자재를 찾고 회수하는 과정에는 현장 직원들의 참여가 더해졌다. 주말에도 분해와 선별 작업이 이어졌고,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들은 제강 원료로 다시 태어났다.

김용휘 팀장은 "버려지거나 헐값에 매각되던 자원을 우리 손으로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자긍심이 팀 전체에 확산됐다."고 말한다. 하나의 성취가 더 큰 도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 순간이었다.

#### 거리낌 없는 소통, 빠른 실행 그리고 분석의 힘

정재영 과장은 이번 성과의 비결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과 '실행력'을 꼽는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로 방향을 점검하되, 일상에서도 과제를 본업과 동일선상에 두고 고민했다. 논의는 빠르게 결정으로 이어졌고, 결정은 곧바로 현장의 실험과 데이터로 연결됐다.

이민재 사원이 약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공급사를 발굴한 것, 박민기 사원이 건조·브리켓 가공 프로세스를 구축해 형상 문제를 해결한 것, 김동욱 과장이 합금철 원료의 Mix 최적화를 추진한 것 모두 같은 결의 실행이다. 각자의 과업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서영우 과장과 이희재 연구원은 프로젝트의 숨은 공로자로 김호경 공장장과 신남도 센터장을 꼽았다. 초기에는 용해성, Pick-up 등 여러 문제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팀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 이와 함께 Ni 회수 설비 초기 핵심 멤버로 소형생산실 김종호 실장, 메탈공정연구그룹 권용달 그룹장, 혁신센터 박재완 부장을 함께 언급했다.

이들은 저원가 Ni 원료 확보를 위해 초기 Ni 농축 연구과제 수행과 Ni 부산물 설비 투자 검토 등 양산체계 구축 전반을



설계했으며, 설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Ni 회수설비가 안정적으로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시험관리팀의 지원은 '기술의 언어'를 '신뢰의 수치'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습식 제련 제품 분석은 기존 건식 제련 중심의 분석 환경에서 낯선 영역이었지만, 검량선 수정과 외부 검증을 반복하며 니켈 원료 성분 분석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품질에 대한 신뢰 역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새로운 사업 모델로의 확장

지금까지는 '만든 것을 내부에서 소진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외부 판매가 가능한 사업 모델로의 확장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업적상 수상팀의 계획이다.

이희재 연구원은 Ni 회수설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부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해 Ni·Co 함유 부산물을 회수설비에 적용하고, 이를 고품위 배터리 원료로 전환·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적상 수상팀은 Ni 부산물과 AOD 분진을 혼합해 Fe-Ni 제조공정 원료로 활용하는 Upcycle 프로세스를 설계함으로써, 사내·외 자원을 연계한 효율적인 원료 순환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홍민석 팀장은 "우리가 만든 제품을 외부 니켈 수요 업체에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한 다음 단계 역시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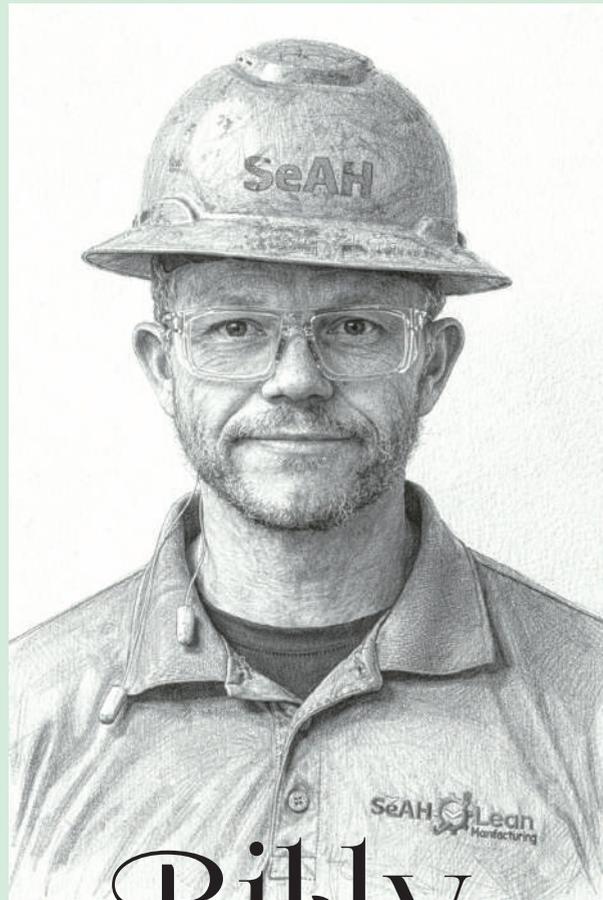
이번 업적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꾼 기술과 운영의 완성'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폐수오니, 제강 분진, 폐자재는 더 이상 매립장의 부담이 아니라 원료 순환의 출발점이 됐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될 때까지 놓지 않는' 현장의 태도였다.

인터뷰 말미에서 홍민석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업적은 누군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끝까지 책임져 준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버려지던 것에 다시 가치를 부여한 이들의 도전은,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단한 발판이 되고 있다. ☺

# 휴스턴에서 가치를 키워가는 세아의 이름, 세아의 사람들

빌리 파머트리(Billy Palmertree) SeAH Steel USA 슈퍼바이저



# Billy Palmertree



SeAH Steel USA의 톨링·슬리터 슈퍼바이저, 빌리 파머트리(Billy Palmertree)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이자 거대한 산업 설비와 노동자의 땀이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이곳에서 한 명의 '세아인'이 하루를 시작한다. 세아제강의 북미 사업을 담당하는 SeAH Steel USA의 톨링·슬리터 슈퍼바이저, 빌리 파머트리(Billy Palmertree)다. 그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성장해왔다. 유지보수 담당 밀라이트로 출발해 톨링 부서를 이끌었고, 이제는 생산의 핵심 공정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가 되기까지, 그의 커리어에는 SeAH Steel USA의 성장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타트업 같은 긴장감, 글로벌 기업의 안정성이 공존하는 회사**

빌리 퍼머트리는 휴스턴에서 나고 자랐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은 화려함보다는 '일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에너지, 정유, 철강, 물류 산업이 집적돼 있고,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을 지탱해왔다. 빌리는 이 도시를 '산업 기반이 강한 전형적인 노동자 중심의 도시'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직업관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현장을 이해하고, 설비를 알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일. 빌리에게 일은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런 그가 SeAH Steel USA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1월이다. 세아제강이 OMK Tube를 인수하며 미국에서 본격적인 제조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는 인수 이전 유정용 강관(이하 OCTG) 제조사인 OMK Tube에서 유지 보수 담당 밀라이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세아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막 출발한 회사였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탄탄한 역사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빌리는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인 환경과 글로벌 제조 기업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세아의 인수를 기회로 바라봤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다는 기대 속에 세아의 일원이 됐다.

SeAH Steel USA에서 빌리의 역할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확장됐다. 처음에는 유지보수 담당자로 현장을 지켰고, 인수 이후에는 톨링 업무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이후 부서가 성장하면서 톨링 리드를 맡게 됐고, 튜빙 및 오픈과 함께 조직이 확대되자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년 전부터 슬리터 부문까지 총괄하게 된 그는 생산의 출발점인 슬리터와 설비 품질을 좌우하는 톨링 두 팀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슬리터가 없다면 튜빙 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공급할 수 없다. 그는 일일 업무 관리부터 현장 문제 해결까지 슬리터팀과 함께 움직인다. 두 명의 숙련된 크루 리더는 '안전 최우선, 품질은 필수'라는 SeAH Steel USA의 핵심가치를 팀 전체에 교육하고 있다.

두 개의 밀과 슬리터를 지원하는 톨링팀은 밀스탠드를 제작해 운영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팀 리더와 팀원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관리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한다. 빌리는 팀 운영과 함께 부품과 롤 재고를 관리하고,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업해 설비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세아는 제 가족의 연장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아의 의미를 묻자, 빌리는 주저 없이 대답한다.**



**북미 에너지 시장을 떠받치는 강관 제조사**

SeAH Steel USA는 한국 강관 업계 최초로 북미 지역에 설립된 강관·송유관 제조 회사다. 조관부터 후처리까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에서 고급 OCTG를 생산해 북미 및 글로벌 시추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철강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SeAH Steel USA는 북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빌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안전과 품질에 대한 집중이 SeAH Steel USA를 업계 선도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안전과 품질은 SeAH Steel USA의 현장 곳곳에 체화된 원칙이다. 작업 방식, 교육, 소통 모두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SeAH Steel USA는 최근 2026년 신년회의에서 '7.625인치 생산능력 확장 및 생산 안정화' 프로젝트로 2025 세아업적상(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 세일 시추 환경 변화로 5.5인치 주력 제품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라인을 7.625인치 생산 체제로 신속히 전환한 것이 핵심이었다.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제작하고, 19건의 공정 개선을 통해 투자비와 납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수율과 가동률을 조기에 안정화했다.

빌리는 "특히 설비 설치 과정이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팀워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다.

**가족과도 같은 회사**

"경영진은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빌리가 말하는 SeAH Steel USA의 조직문화는 분명하다.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족같은 분위기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고 있다. 신입 직원들 역시 자신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다.

빌리는 2017년 8월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휩쓸었던 당시를 잊지 못한다. 그와 가족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세아 경영진은 가족의 안부를 먼저 물었고 집 수리를 위한 유엔 근무와 비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경험은 세계 세아가 어떤 회사인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는 그때 받은 배려를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가족 우선'이라는 철학을 현장에서 이어가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역할이다.

글로벌 동료들과의 협업 방향에 대해 빌리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문화와 소통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는 인식이다. 가족을 부양하고, 세아의 혁신을 미래로 이어가며, 업계를 선도한다는 공통의 목적이 차이를 넘어선다고 그는 믿는다.

마지막으로 세아의 의미를 묻자, 빌리는 주저 없이 대답한다. "세아는 제 가족의 연장선입니다."

휴스턴의 산업 현장에서 그는 오늘도 세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하루하루의 성과는 글로벌 기업 세아를 단단히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 ♡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거리의 온도는 더 따뜻해진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순식간에 완성되는 납작하고 둥그란 간식.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득한 식감, 그리고 입 안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시럽까지. 호떡은 겨울을 건디게 하는 작은 위로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호떡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겨울의  
속을 채우는  
달콤함,  
**쫄득바삭 호떡**

### '밀가루 반죽'이 거리로 나온 순간

호떡은 먹는 즐거움에 더해 보는 재미까지 주는 간식이다. 반죽을 떼어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를 꼭 눌러 속을 넣은 뒤 다시 오므려 봉합한다. 그 동작 하나에 호떡의 운명이 갈린다. 속이 과하거나 봉합이 덜 되면 굽는 도중 터지고 시럽이 흘러온다. 그래서 호떡 상인에게는 숙련된 솜씨가 필요하다. 반죽을 다루는 감각, 누르는 힘의 정도, 뒤집는 타이밍까지.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힌 기술이 숨어 있다.

국어사전에서 호떡을 찾아보면 '밀가루 반죽에 설탕이나 팔로로 소를 넣어 둥글넓적하게 구워 낸 떡'이라고 풀이돼 있다. 이름에 '떡'이 들어가지만, 조리 방식만 놓고 보면 빵에 더 가깝다. 떡은 주로 찐 음식을, 빵은 구운 음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호떡의 시작에는 '이동'이 있다. 호떡은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이라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개항 이후 중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형태의 간식이 함께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며 한국식으로 변형돼 지금의 호떡이 됐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처럼 흑설탕

시럽과 견과류를 가득 넣은 달콤한 간식은 아니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속 재료가 달랐고, 설탕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단맛을 강조하지 않은 담백한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설탕 시럽이 호떡의 대표적인 속 재료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짙고 넘어갈 점은, 아무리 같은 반죽과 같은 속 재료를 준비해도 '철판 위에서 눌러 굽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호떡이 된다는 사실이다. 호떡은 기름에 튀기듯 구운 다음, 마지막에 누름판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든다. 이때 철로 된 누름판과 철판은 호떡을 만드는 도구이자 필수 재료라 할 수 있다. 폭신한 반죽이 철판의 열을 만나 바삭함을 얻고, 눌러는 순간 속은 더 촉촉하게 쫄득해진다. 호떡의 맛은 결국 '철'이 완성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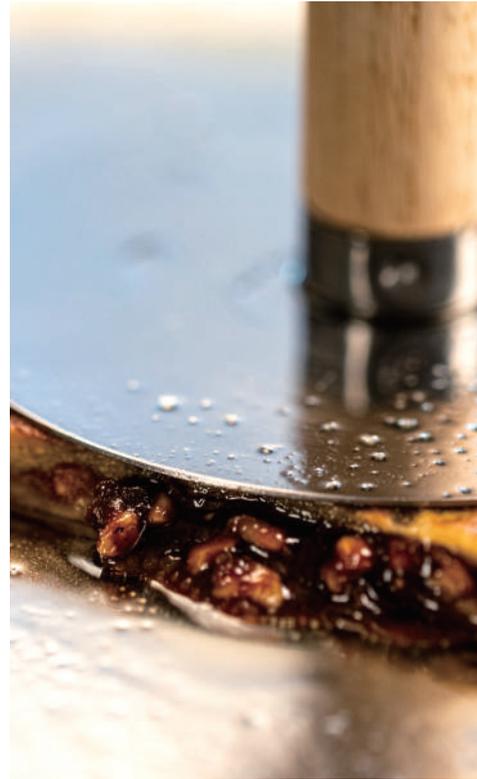
호떡을 구울 때 들리는 소리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 반죽 속 설탕이 열에 녹아 끓기 시작하면 '지글'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사이 시럽은 농도가 높아져 끈적해진다. 겉면은 바삭해지고, 속은 뜨겁고 달콤해진다. 호떡이 '겉바속촉'으로 기억되는 이유다.

### 취향 한 스펀 더한, 여전히 친근한 간식

호떡의 가장 큰 매력은 '촉석성'이다. 주문 즉시 철판 위에 반죽을 올리고, 누름판으로 꼭 눌러가며 구워내는 과정은 하나의 작은 공연처럼 느껴진다. 철판에서 반죽이 익으며 퍼지는 고소한 향, 설탕이 카라멜라이즈되면서 올라오는 달콤한 냄새, 그 사이를 오가는 뒤집개 소리까지. 사람들은 호떡을 기다리는 동안 철판을 응시하며 추위를 잊는다. 호떡을 먹는 순간뿐 아니라, 호떡이 완성되는 그 짧은 기다림마저도 호떡의 맛을 구성하는 요소다.

호떡은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지만, 요즘에는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등장하던 호떡 노점이 이제는 마트의 푸드코트, 프랜차이즈 매장 등 실내 공간에서도 익숙해졌다.

호떡은 먹는 즐거움에 더해 보는 재미까지 주는 간식이다.



호떡을 둘러싼 풍속도도 변했다. 예전의 호떡은 "한 장은 덤이예요."라는 말과 함께 종이봉투에 담겨 나오던 간식이었다면, 요즘은 '취향대로 고르는 메뉴'가 됐다. 기본 호떡은 여전히 흑설탕과 견과류가 정석이지만, 씨앗호떡처럼 견과류를 한층 풍성하게 넣거나, 치즈를 더해 늘어나는 재미를 살린 호떡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잡채를 넣은 호떡, 매콤한 소스로 변주한 호떡까지 등장했다. 달콤함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한 호떡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떡의 '재미'는 여전히 거리에서 완성된다. 추운 손을 비벼가며 호떡을 기다리는 시간, 철판에서 막 구워져 나온 호떡의 따끈한 온기와 달콤함. 호떡은 단지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겨울의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어찌 됐든 호떡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어디서 만들든, 어떤 재료로 변주하든 호떡은 결국 뜨거운 철판 위에서 놀리며 완성된다. 손바닥만 한 반죽이 철의 열을 품고 달콤한 속을 숨긴 채 바삭하게 구워지는 풍경이 상상만 해도 따뜻하다. ☺



# 잘 쉬는 힘, 다시 일어서는 시간

세아 L&S 서울판재영업팀 이지훈 팀장



부캐이커는

##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다.

회사에서는 물류와 철강을 연결하는 영업 리더지만, 주말이면 캠핑 트레 일러를 끌고 떠나는 베테랑 캠퍼가 된다. 이지훈 팀장의 일상에는 두 개의 축 위에서 균형을 이룬다. 하나는 성과와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자연이다. 캠핑장에서 만난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열심히 쉬고, 그 힘으로 다시 즐겁게 일한다는 그의 취미를 들여다봤다.

### 나를 만나러 여행을 떠나다

이지훈 팀장의 첫 텐트는 2013년 어느 날, 당일치기 나들이용으로 구매했던 것이었다.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의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는 그곳에서 가장 솔직한 자신을 마주하게 됐다. 회사에서 짊어지는 책임, 사회와 타인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본래의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는 캠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회사에서는 늘 누구의 상사이자 동료로 불리지만, 숲에 들어가면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다.

‘베테랑 캠퍼’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 텐트를 제대로 치지 못해 밤새 바람에 시달린 적도 있었고, 비 오는 날 장비를 잘못 챙겨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그를 더 오래, 더 깊이 자연과 연결해주는 밑거름이 됐다.

“비를 맞고, 춥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름 폭우와 강풍 속에서도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본다. 겨울이면 자고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섰을 때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설중캠핑의 풍경을 마주한다.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 함께 견디며 가족은 성장한다

주말이면 가장 먼저 짐을 꾸리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캠핑 애호가가가 되기까지, 그의 곁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 혼자 시작했던 캠핑은 어느새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확장됐고, 시간은 그 경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탐탁지 않아 했다. 굳이 밖에 나가 불편하게 잘 필요가 있냐는 핀잔도 들었다. 그러나 몇 번 함께 다녀온 뒤에는 오히려 다음 여행을 묻기 시작했다. 그는 캠핑을 '불편함 속에서 좋은 점을 찾는 경험'이라고 표현한다. 호텔이나 펜션보다 불편하지만, 함께 텐트를 치고 머물 자리를 만들며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집중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과정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캠핑장에서는 집에서와 다른 얼굴을 마주한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대신 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상을 차린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이 10년을 훌쩍 넘었다. 비 오는 날 텐트 안에서 들었던 빗소리, 갑자기 불이 꺼져 다 같이 웃었던 순간, 새벽을 깨우던 새소리까지 캠핑의 기억은 가족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캠핑용 카라반 역시 가족의 선택이었다. 덕분에 사계절 내내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캠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이라고 강조한다. 잘 자야 여행의 피로가 풀리고, 다시 떠날 힘도 생긴다는 것이다. 주차와 운전이 쉽지 않지만, 카라반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가족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캠핑을 이렇게 오래 취미로 이어오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제 그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다. 바로 가족과 함께 캠핑카로 세계를 누비는 일이다. "유튜브에서 직접 만든 캠핑카로 대륙을 횡단하는 가족을 봤어요. 당장은 우리나라의 캠핑장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목표지만, 간절히 바라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함께 더 긴 여정을 떠나는 날도 오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제 삶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 쉬는 사람이 잘 산다

그에게 캠핑은 탈출이 아니다. 일상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반복되는 업무와 책임,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 그는 캠핑을 통해 자신의 속도를 되찾는다.

"사람들은 캠핑을 그냥 쉬러 가거나, 멀리 놀러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쉬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버틸 힘을 찾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제 삶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의 하루는 규칙적이지만 그만큼 쉽게 사람을 지치게도 한다. 그 역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마주한 적 있다. 그때마다 떠났던 캠핑은 그를 다시 활짝 웃게 만들었다.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텐트 안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 일상에서는 잃어버리기 쉬운 감각들이 되살아난다.

회사에서는 많은 일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캠핑에서는 스스로 불을 붙이고 물을 데우며 자연과 호흡해야 한다. 그는 그 과정이 자신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든다고 한다. 예전에는 바쁘면 더 버티는 쪽을 택했지만, 이제는 한 번 떠나고 돌아오면 해결될 문제라는 걸 안다. 여행은 그렇게 그의 삶의 리듬이 됐다. "물류는 연결하고, 철강은 지탱합니다. 저에게 캠핑은 저와 가족과 연결하고,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는 세아가족에게도 잠시 업무의 긴장을 내려 놓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쉼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출발이다. 잘 쉬는 힘이 곧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다. ♡

강원도 원주 산자락에 자리한 뮤지엄 산은 건축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가 되는 공간이다.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배치된 건물, 단순한 재료와 명확한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놓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느슨한 흐름 속에 어우러져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철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건축과 예술 작품의 재료로 쓰인 철은 콘크리트로 된 공간과 만나 또 다른 인상을 남긴다.

# SAN

철로 완성된 풍경  
뮤지엄 산

# Museum

### 산의 흐름을 따르는 건축

뮤지엄 산은 원주의 산세를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돼 있다. 건물은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 있지 않고, 여러 동이 마당과 통로로 연결돼 있다. 관람객은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게 된다.

건축 전반에 사용된 노출 콘크리트는 마감으로 가려지지 않은 채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벽, 바닥, 천장이 구분되며 수평과 수직의 선은 뚜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주변 풍경은 더욱 온전하게 인식된다. 산과 하늘, 바람 같은 요소가 건축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뮤지엄 산의 건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철이다. 난간과 구조 보강 요소, 외부 조형물 등에서 철은 콘크리트와 대비를 이루며 사용된다. 콘크리트가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면, 철은 선명한 긴장감을 만든다. 직선적인 형태와 날카로운 모서리는 공간에 분명한 기준선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비는 건축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작품 역시 공간에 묻히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한다.

## ‘곳’이 보기보다 ‘움직임’, ‘움직임’이 보기보다 ‘곳’

### 동선과 배치가 만드는 관람의 리듬

뮤지엄 산은 ‘많이 보는 곳’이라기보다 ‘충분히 느끼는 곳’에 가깝다. 관람 동선은 비교적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며, 전시장 사이사이에 야외 공간과 마당이 배치돼 있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잠시 시선의 폭을 넓혀 준다.

작품 간 간격 역시 넉넉해 하나의 작품을 감상한 직후 곧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기보다, 감상의 여운을 유지한 채 이동할 수 있다.

벽면과 바닥의 마감은 절제돼 있어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며, 전시 공간 자체가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조각 작품들은 공간의 크기와 비례를 고려해 배치돼 작품이 공간을 압도하지도, 공간에 묻히지도 않으며 건축과 나란히 놓여 각자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낸다.

### 철의 연결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람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붙잡는 작품이 있다. 뮤지엄 산에서 철이라는 재료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Alexander Calder의 〈Red Stabile〉이다. 〈Red Stabile〉은 Alexander Calder가 확립한 ‘Stabile’ 개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조형이다. ‘Stabile’은 움직이는 조형인 ‘Mobile’과 달리,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서 있는 대형 철제 구조물을 의미한다. 움직임 대신 구조적 균형과 긴장감을 통해 역동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정지된 형태 안에 리듬과 긴장, 상승의 감각을 불어넣는다. 곡선으로 절단된 강철 판들이 서로 기대고 교차하며 형성하는 구조는 하나의 덩어리라기보다는 공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관계망에 가깝다. 각 요소는 독립된 형상을 지니면서도 전체 구조 안에서 서로의 무게를 분산하고 지탱한다.

뮤지엄 산의 수공간 위에 설치된 〈Red Stabile〉은 건축과 자연 사이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물 위에 서 있는 붉은 강철 조형은 주변의 콘크리트 건축과 산세, 하늘을 동시에 반사하며 하나의 장면을 완성한다. 견고하고 무거운 철은 물이라는 유동적인 자연 요소와 대비되면서 오히려 그 존재감은 더욱 또렷해진다. 자연은 배경으로 물러나지 않고, 조형과 함께 공간의 일부로 작동한다.



특히 직선과 평면이 아닌 곡선과 비대칭의 형태로 가공된 강철은 건축이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수평·수직의 체계와 대비를 이루며 시각적 긴장을 만든다. 이 긴장은 오히려 자연과 건축, 인공과 풍경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준다.

철이라는 단단한 재료는 이곳에서 고정된 물성이 아니라, 자연과 건축 사이를 연결하며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 공간의 성격을 확장하는 대표 작품들

뮤지엄 산에는 Alexander Calder의 작품 외에도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확장하는 주요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빛과 시각을 주제로 한 James Turrell의 작품은 자연광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며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광을 활용한 설치는 뮤지엄 산의 건축적 개방감과 잘 어울린다.

Tadao Ando와 Antony Gormley의 첫 협업으로 탄생한 〈Ground〉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꾸준히 탐구해 온 두 거장의 사유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현된 작업이다. '대지'이자 '현재에 몰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작품은, 우리가 딛고 선 땅과 교감하며 자연과 새롭게 관계 맺도록 이끈다. 〈Ground〉는 플라워 가든 아래에 자리한 지하 동굴형 구조로, 동쪽으로 원주의 산맥을 향해 열린 입구를 갖는다. 지름 25m의 지하 공간과 야외 정원에는 Antony Gormley의 〈Blockworks〉 시리즈 조각 7점이 배치돼 전시와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Ground〉는 전시장이자 작품이며, 이를 둘러싼 자연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 천창으로 스며드는 빛과 바람, 나뭇잎 소리는 모두 건축과 작품의 일부로 작동하며, 변화하는 '지금 여기'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 자연스러움의 힘

뮤지엄 산에서 관람객은 느린 호흡으로 자연과 예술, 건축을 경험한다. 걸음을 늦추고, 공간을 살피고, 작품을 한 번 더 돌아본다. 자연과 예술, 철과 콘크리트가 함께 만든 조화롭고 여유로운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름에 드러나듯 기능적인 공간이자 자연의 일부인 이곳. '뮤지엄 산'은 과장된 장치 없이도 충분한 인상을 남기며, 철이 풍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 속을 걷고 바라보는 모든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오래도록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다. ♡



천창으로 스며드는 빛과 바람 모두 건축과 작품의 일부로 작동한다.

## 뮤지엄 산 여행 팁 자연과 예술이 완성하는 가장 고요한 하루



### 베스트 방문 시간

가장 추천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2시. 탁 트인 빛이 명상관과 워터가든에 고르게 들어오며, 사람도 비교적 적어 조용히 관람하기 좋다. 여름에는 아침, 겨울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건물 벽면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져 사진이 잘 나온다.

### 꼭 들러야 할 포인트 5

- ① 명상관  
(안도 다다오의 공간미학 결정체)  
빛, 물,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진 압도적인 공간.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뮤지엄산의 진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 ② 제임스 터렐관  
한국에서 터렐의 빛을 가장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관람은 사전 예약 필수.

### ③ 워터가든

온도가 낮은 계절에도 고요함이 유지되는 뮤지엄산의 시그니처 포인트. 정면보다 측면에서 바라볼 때 건축의 선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인다.

### ④ 플로팅 가든

구름과 하늘이 조경 위로 내려앉은 듯한 풍경. 계절별 색감 변화가 뚜렷해 사진 촬영 명소로 꼽힌다.

### ⑤ 하늘정원

촬영을 위한 최고의 스폿. 넓게 펼쳐진 구름지와 미술관의 콘크리트 선이 한 화면에 들어온다.

### 사진 잘 찍는 방법

광각 렌즈 필수: 건축 선이 길기 때문에 0.5배 촬영이 유용하다. 사람 없는 사진을 원한다면 개장 직후나 비 오는 날을 노려볼 것. 물 위 반영 샷은 바람이 적은 오전이 가장 선명하다.

### 주변 추천 동선

뮤지엄산은 시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 이동 동선을 미리 짜면 좋다. 원주 미로예술원 → 뮤지엄산 → 간현관광지(소금산 출렁다리) 순서로 하루 코스를 구성하면 자연·예술·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다.

### 실용 정보

- ① 사전 예매  
현장 매표가 잦아 온라인 예약 권장.
- ② 입장 소요시간  
최소 2~3시간 체류 추천.
- ③ 카페  
'뮤지엄산 카페'는 뷰가 뛰어나지만 혼잡도가 높으니 관람 후 오후 늦은 시간 이용이 편하다.
- ④ 동선  
경사가 있어 편한 신발이 필수.

# SeAH NEWS

## 세아베스틸

### 세아베스틸, 전기로 슬래그 콘크리트용 골재 환경표지 인증



제강 공정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재활용해 만든 콘크리트용 골재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자원 재활용 혁신의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이다. 혁신의 핵심은 '분리'에 있다. 기존의 '혼합' 처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슬래그를 종류별로 분리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고부가가치 원료로 새롭게 정의했다. 전기로 슬래그는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 골재로 활용되며, 정련 슬래그는 초속경 시멘트 원료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대위험 작업 개선 및 안전문화 활동 강화



세아베스틸 군산 기술연구소와 창녕공장은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작업장 안전 통제 강화, 중대재해 위험요소 개선을 통해 공정 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 기술연구소는 소형압연 라인 온도 측정 작업 방법을 변경하고, 배가스 측정 자동화와 마크로 평가 핸들링 지그를 도입함으로써 고위험 작업을 줄였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 1등급을 획득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창녕공장은 OC·HC 탱크 상부 안전로프 설치와 소형정정 스케일박스 자동 이송 장치 도입으로 현장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과 밀폐공간 특화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세아씨엠

### 세아씨엠, 미러코트 제조방법 특허 출원



세아씨엠의 고성능 컬러강판 신제품 '미러코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가 지난 1월 특허청에 출원돼,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미러코트 상표권은 지난해 11월 등록을 완료하며 기술과 브랜드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허 출원은 품질경영팀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부서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협업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향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아씨엠, 2026년 상반기 헌혈캠페인 전개



2월 11일, 세아씨엠 한마음생활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세아씨엠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창원특수강, '2030 비전 선포식' 개최



지난 1월 21일, 세아창원특수강은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설계를 위한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30년 특수강 글로벌 최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Steel & Metal 종합소재 메이커로 도약하고,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선언문을 선포했다. 또한 최적 생산 체제 구축, 차별적 기술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정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사우동정

## 세아홀딩스

**입사**  
제갈유진 법무팀

## 세아제강지주

**출산**  
유지현 재무팀

## 세아제강

**입사**  
설승호 창원공장 생산팀  
이호준 창원공장 생산팀  
박현정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김상철 창원공장 생산팀

**결혼**  
손정국 본사 자금팀  
임심식 포항공장 선형연구팀  
김은섭 포항공장 대경생산팀

**출산**  
김성택 본사 STS내수팀  
신호석 포항공장 중경1공장  
한수빈 순천공장 업무지원팀

**조의**  
장원주 본사 인사팀 (빙부)  
박형규 창원공장 품질경영팀 (빙모)  
박진석 포항공장 안전환경팀 (부)

## 세아베스틸지주

**입사**  
김현아 ESG팀  
최하윤 지원팀

## 세아베스틸

**결혼**  
박정훈 1제강팀  
김영후 대형압연팀  
강현우 압연설비팀  
박치룡 영남실수요영업팀

**출산**  
김호진 대형압연팀  
김창동 소형압연팀  
정지훈 공정연구2그룹

## 조의

김도겸 2제강팀 (모)  
이기준 연주팀 (모)  
김동수 연주팀 (모)  
송주안 제강설비팀 (모)  
신재철 단조설비팀 (부)  
백두환 압연설비팀 (부)  
박두진 단조설비팀 (빙부)

##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김지환 소형압연팀  
김동혁 공구강수출영업팀

**출산**  
문해준 소형압연팀  
손병준 특수제강팀

**조의**  
최재홍 대형압연팀 (빙모)  
박진덕 2제강팀 (빙모)  
김문홍 압연설비팀 (빙모)

## 세아특수강

**입사**  
이규웅 인재기술본부  
오준호 선재생산팀(포항)  
김바름 설비팀(원주)  
윤희석 안전환경팀(포항)

**결혼**  
임지현 인사팀

**출산**  
문재성 품질팀(원주)

**조의**  
윤경철 품질보증팀(충주) (부)

## 세아항공방산소재

**입사**  
김홍균 생산팀  
박중성 생산팀  
방기선 생산팀  
이상기 생산팀  
최태준 생산팀  
김성은 생산팀  
이정원 생품질기술팀

**결혼**  
방기선 생산팀

**조의**  
염기훈 생산팀 (빙부)

## 세아&S

**입사**  
백승인 당진공장  
정현영 인사팀

**출산**  
이재진 군산물류팀  
박혜림 당진공장

## 세아네트웍스

**조의**  
김태완 기계1팀 (빙부)

## VNTG

**입사**  
배대웅 인프라팀  
고진영 제조MES2팀  
심다인 SP팀  
이재섭 제조MES2팀

**조의**  
김병태 사업2팀 (빙부)

# 당신을 칭찬합니다

2026 1+2월호 칭찬 주인공

세아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이경민 매니저님을 격하게 칭찬합니다!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세아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이경민 매니저님을 격하게 칭찬합니다! (짜짜짜)  
세아타워에서 행사 준비를 하며 이경민 매니저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분이 없으실 거예요.  
예행연습은 물론 행사 당일에도  
누구보다 먼저 와서 준비와 세팅을 완벽하게 도와주셨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한 번도 찡그리시는 법 없이  
매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 스티커 100개 드리고 싶습니다! :)

-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대리

## <세아가족> 사보 기자

-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이해연
-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 세아베스틸지주 인사팀 정빛나
-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박수빈
- 세아특수강 인사팀 변훈규
-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 세아 L&S 인사팀 정현영
- 세아네트웍스 기업문화팀 곽정현
- 브이엔티지 People Hub팀 김효윤

# SěAH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